

일본 최초 '마이너스 이온' 환원 욕조가 여성 고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다케타 온천 하나미즈키

다케타의 옛 성 아래 도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다케타 온천 하나미즈키는 거친 피부나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분과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일본 최초 '마이너스 이온' 환원 욕조를 갖춘 온천 및 기념품 가게를 겸비한 시설입니다.

나가유 온천 등 다케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예로부터 온천을 즐겨왔습니다. 다케타 온천 하나미즈키는 옛 성 아래 도시에서 가장 가까운 목욕 시설로 2001년에 개장했습니다. 다케타시 교외에 있는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하쿠스이 댐을 본뜬 목욕탕 내 작은 폭포 등 다케타 온천 하나미즈키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은 산업 유산을 비롯한 다케타시의 역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.

시설 2층에는 목욕탕이 있고, 1층은 다양한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 공간입니다. 다케타시의 특산품인 라임과 비슷한 감귤류인 '가보스'를 사용한 식품과 일본 총생산량의 약 80%를 차지하는 것으로 유명한 다케타산 사프란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
다케타 온천 하나미즈키에는 목욕탕, 오카 성터, 다케타 역사 문화관 등 다케타의 주요 관광 명소 5곳을 할인된 요금으로 입장할 수 있는 성 아래 도시 패스पोर्ट를 판매하고 있습니다. 패스पोर्ट의 유효기간은 2일이며 요금은 성인 800 엔, 초·중학생 500 엔입니다.

다케타 온천 하나미즈키의 정면 현관 옆에는 족욕 공간이 있어 주말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발에 쌓인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.